

■ 법률 칼럼

# 프로디 학원 이슈에 대한 최근 경향 및 601면제 사례에 대한 소개

## 1. 프로디 문제에 대한 개인적 의견

친이민적인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연일 이민에 관한 행정명령이 나오고 또 불체자 구제안이 포함된 이민개혁 법안이 상정되면서 많은 이민자들이 변화에 대한 조짐을 보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향과 맞물려 과거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이민법 이슈들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큰 문제가 되어 왔던 프로디 학원 이슈에 특히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민 업무를 담당해오고 있는 변호사로서 저의 조언은 일단 추세를 조금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오랫동안 프로디 학원 문제로 심사에 계류 중이던 영주권 신청이 승인이 된 사례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프로디 관련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이 최근에도 거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영주권 심사 과정이 다소 완화되어 과거보다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디 학원 등록 기간이 짧은 경우에 대한 선처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프로디 학교 수업 출석에 대한 증거도 관대하게 검토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관이 영주권 심사 시에 프로디 학교에 등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민법 위반 즉 범죄 사실이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문제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고 근본적인 해결은 601면제를 통한 범죄 사실 면제(601 Waiver) 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불체자 구제안은 프로디 문제와 같은 범죄 사실의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디 학원 관련 문제를 현재 추진 중인 불체자 구제법으로 해결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 2. 601면제로 영주권 승인을 받으신 최근 사례

시민권자의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는 아들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A씨 본인의 영주권이 프로디 문제로 이미 거절되었고 부인 B씨의 영주권은 계류 중인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정말 다행히 부인의 영주권은 곧바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1 면제의 기준으로 쓰실 수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 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씨가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시면 남겨진 영주권자 배우자 B씨가 겪으시게 될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재정적 고통의 측면에서 진술서, 진단서, 처방전 등의 증거로 증명함으로써 601 면제를 신청하여 작년에 승인을 받았고 승인 후에 시민권자 아드님의 초청장 (I-130 Petition)을 근거로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지난 18일에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케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 Schabarum-Skyline Trail

## -LA Coun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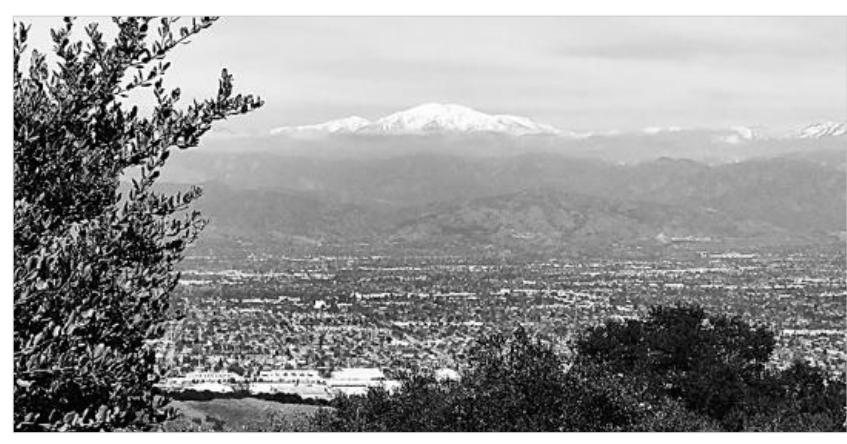
본래 이 트레일은 30마일 정도 되는 긴 코스이다. 오늘 소개하는 코스는 그 중의 한 구간에 지나지 않는다. 가는 길부터 소개한다. 오렌지카운티에서 Beach Blvd.타고 북상하다보면 끝나는 길이 Whittier Blvd.이다. 여기서 우회전 하자마자 첫 번째 사거리에서 Hacienda Blvd.로 좌회전한다. 구불구불 고개를 넘어 Collima Rd.를 지나 조금 내려가면 Tetley St.을 만난다. 여기서 좌회전한 후 그대로 길 따라 간다. 중간에 작은 길을 만나지만 계속 큰길을 따라 간다. 가면 서 길 이름이 Las Lomitas Dr., Turnbull Canyon Rd. Skyline Dr. 등으로 바뀌지만 계속 간다. 길이 끝날 즈음에 왼쪽 주택 담장에 차를 붙여 세우고 트레일을 시작한다. 중간에 좌우로 많은 Trail이 나오지만 그대로 길 따라 걷는다. 옆길을 따라 가면 또 다른 트레일이 되니까 얼마든지 걸어도 좋다. 단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된다. 잠시 걸다보면 커다란 물탱크가 나온다. 온통 낙서로 뒤덮여 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빈 탱크인 걸로 생각된다. 그 탱크로 오르는 길이 장난이 아니다.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사람들은 성급하게 오르려 하지 말고 천천히 걷기 바란다. 그곳에 올라서면 사방팔방이 한눈에 들어온다. 멀리 눈 덮인 마운틴 발다가 보이고, 방송사 송신탑이 세워진 마운틴 월슨도 보인다.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LA 다운타운의



▲ 온통 낙서로 뒤덮여 있는 물탱크. 사진=타운뉴스

고층빌딩들이 보이고, Long Beach의 고층 건물들도 보인다. 계속해서 바다라고 짐작되는 곳들이 하늘과 맞닿아 있다. 여기서 돌아오기는 쉽지 않게 생각되기 마련이다. 좀 더 산등성이를 따라 걷는다. 잠시 후 왼쪽으로 로즈힐 공원묘지가 한눈에 보인다. 거기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또 작은 물탱크가 보인다. 그곳까지 걸어갔다 와도 좋고 그쯤해서 오른쪽을 보면 아주 작은 언덕이 보인다. 그 언덕을 올랐다가 와도 좋다. 필자는 지난주 화요일(3월 16일) 오후에 친구의 안내를 받으며 2시간 정도 걸다 왔다.

나무 그늘이 없으므로 반드시 챙이 달린 모자를 착용할 것을 권한다. 이 트일 전 구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다음 링크에 들어가 보기 바란다. <https://trails.lacounty.gov/Files/Quick-Guide/SchabarumSkyline.pdf>



▲ Schabarum-Skyline Trail. 멀리 눈 덮인 마운틴 발다가 보인다. 사진=타운뉴스

##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신규 케이스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및 접수 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b>이민법</b>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b>*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b>
<b>부동산법</b>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b>상법</b>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